서울 한 복판에 '佛' 오신다

불교중앙박물관 3월 26일 개관…특별전 '한국불교 1700년…' 개최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이 3월 26일 문을 연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1층~3층에 들어설 박물관은 전시실(360여평)을 비롯해 수장고(100평), 학예연구실(50평), 뮤지엄샵 및 다실(50평), 보존처리실(30평) 등 5개 시설로 구성돼 있으며, 상설전시 및 특별전, 불교미술대전 등이 열릴 예정이다.

우선 박물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전시공간은 상설전시실 3개와 시청각실, 전시준비실 등을 갖추고 있다. 각종 유물을 보관하게 될 3개의 수장고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3층에 위치한다.

이곳에서는 상설 전시되거나 전국 사찰에서 전시를 의뢰한 성보문화재를 보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관람객들이 기념품을 사거나 간단한 다과를 즐길 수 있는 뮤지엄샵과 다실 등도 마련해 놓아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불교중앙박물관은 한국불교문화를 총체적으로 알리고자 3월 26일부터 부처님오신날인 5월 24일까지 개관특별전 '한국불교 1700년 삼보특별전Ⅰ-불(佛 · Buddha)'을 개최한다. 특히 성보를 미술품으로 인식하는 기존 관례에서 벗어나 전시물 자체가 하나의 예배대상이 될 수 있도록 차별적 전시물을 보여준다는 것이 이번 전시의 특징이다.

제 1전시실에는 '자력신앙-고타마 싯다르타에서 붓다로, 깨달음을 얻다'를 주제로 금동여래좌상(국보 182호)과 안압지 판불(보물 1475호) 등이 봉안된다.

제 2전시실에는 '타력신앙-부처의 힘을 빌려 극락왕생하다'로 아미타불과 약사불 등 불보살들이, 제 3전시실에는 오대진언 관음 42수 등 다불신앙과 관련된 작품들이 선보인다.

사찰, 국 · 공 · 사립박물관 대여유물 등 150여 점이 전시되는 이번 특별전은 3월 26일 개관기념법회에 이어 일반인들은 3월 27일부터 관람 가능하다. 입장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대략 2천~3천원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주완 문화재팀 행정관은 "도심 중앙에 위치한 불교중앙박물관의 개관으로 일반인들도 쉽게 성보문화재를 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립박물관에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을 보존시설을 갖추고 있는 만큼 성보문화재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심주완 행정관은 "2008년에는 삼보특별전Ⅱ-법(法)을, 2009년에는 삼보특별전Ⅲ-승(僧)을 시리즈로 기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불교중앙박물관에는 1월 18일 첫 전시물로 철단조 사천왕상이 봉안됐다. 이 사천왕상은 철을 단조해 만든 부조로 박물관측이 직접 디자인하고 유명 금속공예가 이근세(37)씨가 제작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왼쪽)과 봉암사 주지 함현 스님이 창건주 지증 대사 적조탑 앞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둥글고 밝은 복지세상 만든다

진각복지재단, 사회 양극화 해소 등 사업안 발표

진각복지재단(이사장 회정)이 올해 진각종 창종 60주년과 내년 복지재단 창립 10주년을 맞아 '진각복지센터 건립' '진각보기 60 프로젝트'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한다.

진각복지재단은 올해 사업지표를 '모두가 함께하는 둥글고 밝은 복지세상 만들기'로 삼고 △사회양극화 해소 △종단 · 법인 · 시설이 함께하는 복지 △문화 · 교육 · 연구라는 세 가지 큰 사업 줄기를 마련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진각복지센터' 건립. 현재 진각복지재단이 위치한 서울 성북구 하월곡2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세우고 노인전문 요양원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올 봄 착공해 12월까지는 완공할 예정이다. 복지센터 1층에는 '진각혜민소(가칭)'를 마련해 저소득 가정 지원과 무료법률상담 등의 사업을 펼친다. '혜민소'는 조선시대 의약과 서민 구휼을 담당했던 '혜민서(惠民署)'의 정신을 잇기 위해 마련한 부서다. 진각복지센터 건립에는 국비 약 15억원, 시비 약 15억여원, 진각종 자체 재원 등 총 45억원이 투자된다.

4월 중으로는 현재 완공 단계에 있는 포항시 남구의 '포항실비노인요양원'을 개원하고, 5월에는 미혼모시설(양육모그룹홈)이 문을 연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는 자원봉사 60시간 실천하기, 종립학교 불교학생회를 통한 독거노인 60명 '한가족 맺어주기', 신규 시설 개원 등을 통한 60명 일자리 창출, 산하 13개 지부와 함께 펼치는 60가정 결연 맺기 등이 진행된다. 또한 복지재단 직원을 중심으로 생명나눔운동 60명 동참, 종단 성직자 60명의 노인유사체험 및 자원봉사 등도 마련된다.

그동안 진각복지재단이 공을 들여왔던 폐사지 투어콘서트, 소외된 문화재 돌보기 사업 등 '문화복지'도 계속 이어진다.

여수령 기자

수행결사 60년 도량 정진열기 '후끈'

지관 스님 봉암사 방문

동안거가 한창인 1월 24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종립특별선원이 있는 문경 봉암사를 찾았다. 1948년 성철, 청담, 법전 스님 등이 "부처님 법대로 살자"며 결행했던 봉암사 결사 60주년을 맞아 수좌들에게 '대중공양'을 올리고 격려하기 위한 발걸음이었다.

지관 스님은 봉암사 태고선원장 정광, 주지 함현 스님을 만나 "수좌들은 조계종의 기둥"이라며 "진여자성을 밝히고 세상과 인류를 밝혀 달라"고 격려했다.

현재 봉암사에서는 10개월간 하루 12시간씩 화두를 참구하는 '10개월 결사' 대중 20명과 하루 10시간씩 정진하는 안거대중 21명, 기본선원 안거대중 등 80여 스님들이 수행을 이어가고 있다.

문경 봉암사=박봉영 기자

"불교자정기구 설립합시다"

불교환경연대 등 3단체, 종단차원 설립 제안

불교계 3개 단체들이 종단에 만연한 도덕불감증과 자정기능 상실을 비판하며, 불교단체 및 기구가 참여하는 종단 차원의 '불교 자정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효림 · 성관),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공사(준비위원장 만초)는 1월 24일 조계사 설법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곡사 주지 구속, 흥천사 토지 불법매매 건 등 종단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단체들은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난마처럼 얽힌 문제를 차근차근 풀기 위해 종단 자정 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총무원과 중앙종회, 호계원의 조치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교계단체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할 것이며, 이를 통해 상설화된 종단 차원의 자정 기구 설립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친자연 탐방 유도 · 생태해설 등 도입해야

천태종 소백산지킴이운동본부 공개토론회서 '제안' 쏟아져

백두대간의 허리인 소백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친자연적 탐방을 유도하는 산행교육과 프로그램 도입, 생태 해설 리플렛 및 소책자 보급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태종 소백산지킴이 운동본부(본부장 무원, 천태종 사회부장)가 1월 25일 단양관광호텔에서 개최한 '소백산의 생태 · 환경적 가치와 보존을 위한 역할 과제'란 주제의 공개토론회에서 조우 상지대 환경생태학부 교수가 이같이 강조했다.

조 교수는 "최근 생태환경이 잘 보존돼 있는 소백산이 이용객 증가에 따른 등산로 내 암반노출, 노면침식, 나무뿌리 노출 등으로 자연의 이차적 훼손위험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김하돈 백두대간연구소장은 소백산 생태계와 경관 복원, 주민들과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생을 두 축으로 △등산로 관리 △입장객 수 조절 및 교육 △밀렵 및 불법채취 방지 △산림훼손 방지 △사찰 및 산촌마을의 환경관리와 함께 난개발과 오폐수 문제 등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소백산지킴이운동본부가 1월 25일 단양관광호텔에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정관진 환경참여연대 사무총장과 방병철 우리무궁화사랑회 자문위원은 "소백산 보존운동은 규제보다는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지역민들과 함께 살아가고 생태자원을 함께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서재철 녹색연합 사회국장은 "죽령을 넘어가는 5번 국도의 아스콘을 걷어내고 소백산 마을을 오갈 수 있는 옛길을 복원하자"고 제안했다.

유기준 상지대 환경생태학부 교수는 "남북에 걸쳐있는 백두대간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용 스님(소백산지킴이운동본부 연구위원)은 "주민과의 연계를 통해 체계적 연구조사를 벌여 파괴된 생태를 복원하고, 지자체와의 협조 아래 오염실태를 조사하는 등 추가훼손 방지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단양=김원우 기자

고속도로변 '종교광고물' 안녕~

고속도로변에서 특정 종교를 홍보하는 광고물이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길희성)은 서울 서초구청(구청장 박성중)과 충북 청원군(군수 김재욱)측이 관내 고속도로변에 있는 특정 종교를 홍보하는 옥외광고물에 대해 "게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월 26일 밝혔다.

서초구청과 청원군 관내 고속도로변에는 고려은단을 홍보하는 광고물에 'Jesus Love You'라는 내용이 표기돼 있었다. 이에 대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정교분리의 원칙과 종교 자유 침해 가능성 등을 근거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초구청 도시정비과는 "위헌소지가 있다면 추후 이러한 내용의 표기는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청원군도 "추후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시 정확한 법적 용으로 관련법에 위배되는 내용의 광고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 및 홍보하겠다"고 23일 답했다.

이 옥외광고물들은 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지원법에 의해 설치한 광고물로, 지난해 12월 31로 시한만료 됐기 때문에 올 2월말까지 단계적으로 철거될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공군 군종병과장 김재철 법사 취임

공군 군종병과장에 김재철 법사(선근 · 사진)가 취임했다.

1월 21일 계룡대 호국사 대법당에서 열린 취임법회에는 대전 만불선원 회주 진철, 군종특별교구 부주지 계성 스님, 정인악 군불교후원회장, 계룡대 호국사 통합신도회장 이봉원 장군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법회에서 진철 스님은 "사부대중 모두가 군불교 발전을 위해 하나가 될 때 진정한 한국불교의 중흥을 이룰 수 있다"고 법문했다.

김재철 법사는 취임사를 통해 "취임의 기쁨보다는 어깨가 무겁다"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병과장으로 최선을 다해 사부대중 모두에게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불교신문 주1회 축소발행 결정에 따른 노동조합 성명서

창간 47주년, 불교의 소식을 제방 곳곳에 전하고 불교의 대사회적 위상을 높이려는 청담대종사의 원력으로 창립된 불교신문은 그동안 제방의 스님과 사부대중, 그리고 직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해 왔다. 이는 월간에서 격주간으로, 다시 주간으로 전환되고 지난 2003년에는 주2회 발행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그런데 지난 1월 22일, 사실상 사문화 됐던 기관지령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1시간여의 논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지시된 내용은 "2월1일부터 주1회로 전환하라"는 통보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노동조합은 실로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운영위원회 구성부터 의문이다. 불교신문의 경영을 책임진 사장스님을 비롯해 내부 구성원 그 누구도 명단에 없이 총무원 부실장스님과 교구본사 몇몇 스님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1시간만에 불교신문 경영과 운영 전반을 살피고, 체제 전환을 지시했다는 점은 누구라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노동조합에서는 지난 3년간 수차례에 걸쳐 경영진에 대해 단기적 · 중장기적 경영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해 왔다. 4년동안 임금이 지속적으로 동결되고 또한 상여금이 수일~한달까지 지연지급되는 현실을 묵묵히 수용하면서 회사와 불교의 발전을 염원해 왔다. 매일 밤 늦은 시간까지 취재와 제작, 영업업무를 진행하면서도 각자의 업무를 천직으로 알고 각자의 소임에 최선을 다해왔다.

하지만 운영위원회에서는 근거없는 경영진단과 주1회 전환에서 오는 영향등에 대한 평가도 없이 무조건적인 주1회를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로 참담한 심정이다. 지난 2002년 주1회에서 주2회로 전환하기 위해 회사 구성원들은 1년여의 시간동안 숙의에 숙의를 거듭했다. 이는 단지 발행 횟수가 한번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사 운영시스템의 변화가 뒤따라야 하는 일인 까닭이다.

경영진에서는 주1회 전환의 주된 이유를 경영수지 악화로 꼽고 있다. 하지만 주1회 축소발행을 통해 발생되는 지출감소 요인은 신문제작비, 발송비로 약 1억 6천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이에따른 광고매출 축소와 독자 감소에 따른 수입감소액은 최소치로 추정해도 지출 감소액을 상회한다.

더구나 2006년 8월 회사측 자료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93%에 이르는 본지의 현실은 여타 주간지, 월간지 어느 곳과 비교해도 매우 양호한 실정이다. 오히려 주1회 전환으로 인해 경영수지가 악화될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불교신문 노동조합은 그동안 신문사와 노동조합은 공동운명체라는 생각으로 구독확장에 적극 참여하는 등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 회사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준해 건전한 노사간 문화를 이룩해 왔다.

하지만 최근 수년사이 이런 문화는 상실됐으며, 급기야 이번 일을 추진하면서 경영진은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성실단체교섭의 의무마저 무시한 채 일방적인 결정으로 회사를 파행으로 이끌려 하고 있다.

불교신문은 한 사찰이나 단체가 만드는 사보가 아니다. 조계종 전 종도의 염원을 담아 창간됐으며, 또 발전해 온 언론이다. 또한 2천만 불자에게 불교의 가르침과 소식을 전하는 매체이다.

신문사의 전 구성원은 대책과 명분도 없는 주1회 전환이라는 역사적 오명을 쓰길 거부한다. 또한 불교신문 구성원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2천만 불자의 언론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분골쇄신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론직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보다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에 경영진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요구한다.

-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주1회 전환의 근거와 타당성을 밝혀라.
- 경영 악화를 이유로 주1회 축소발행을 결정한 것과 관련, 지난 3년간 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진 사장스님의 입장을 밝혀라.
- 운영위원은 기관지령에 명시된 역할에 따라 회사 경영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단기적 · 중장기적 경영비전을 제시하라.
- 시대에 뒤떨어진 기관지령 등 관계법령의 정비를 통해 불교신문이 언론으로서, 문서포교의 선도자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라.

불교신문사 노동조합 조합원 일동